

인터뷰

“공사 물량 확대와 적정 공사비... 지역 건설업 회생의 관건입니다”

- 대구 건설업 재도약을 지상 과제로, 회원사 애로 해소에 매진할 터 -

“지난 30여 년 동안 오직 건설업 외길을 걸어오면서 회사의 발전과 함께 지역 경제의 성장에도 많은 기여를 해왔다고 자부합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건설경기가 최악으로 치달으면서 지역 중소기업 대부분이 생존의 기로에 서 있을 만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회장으로 선출된 것은 지역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대구 건설업의 재도약을 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는 회원들의 지상명령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난 6월 말 열린 대한건설협회 대구광역시회 정기총회에서 경선을 통해 제13대 회장으로 선출된 구자윤 반석종합건설(주) 대표는 앞으로 3년 동안 지역 건설업계의 이익을 대변하고 권익을 찾는 데 진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중소기업들을 방문해 애로 사항을 듣고 물량 확대 등 회원사의 경영 환경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협회를 이끌겠다고 역설했다. 지난달 16일 대구 건설협회 사무실에서 구자윤 신임 회장을 만나 지역 업계의 현안과 과제, 그리고 향후 포부 등에 대해 들어보았다. < 편집자 주 >



구자윤 대한건설협회 대구광역시회 신임회장

대한건설협회 대구광역시회장으로 취임하여 활동하신 지 50여 일이 되었습니다. 건설경기가 최악인 상황에서 지역 건설업계의 수장이라는 중책을 수행하시다 보니 부담도 크실 것으로 보입니다만….

전통적으로 대구는 건설 명문 도시였습니다. 요즘은 많이 위축되기는 하였지만 그래도 대구의 건설은 저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대한건설협회 대구광역시회장으로 선출된 것은 큰 영광입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최근 건설경기가 전국적으로도 워낙 좋지 않고 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취임하고 보니 무거운 책임감과 이를 돌파해야 한다는 의지가 강하게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회장님께서 선거 공약으로 '새롭게 발전하는 협회, 회원사 권익을 대변하는 협회'를 내세우셨는데 향후 3년 간 구체적으로 어떠한 변화와 발전을 기대하고 계신지요?

건설경기가 어려울수록 건설협회가 해야 할 일들이 더욱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도 대구 건설협회는 잘해 왔지만 앞으로 더욱 능동적으로 일을 찾아 발로 뛰며 회원사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애로를 해소하는 데 더욱 매진해야 할 것입니다. 이의 일환으로 먼저, 유능한 회원사 대표들로 구성된 '기획분과위원회'를 조직하였습니다. 협회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게 될 이 위원회는 주로 협회 사무처의 운영 개선 방안, 회원사 일감 확대, 불합리한 제도 개선, 그리고 신규 회원 확대 방안 마련 등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리고 제 임기 3년 동안 건설협회가 향후 일할 수 있는

토대와 시스템을 어느 정도 갖추는 데 많은 관심을 기울일 것입니다. 이처럼 발로 뛰면서 회원사의 애로를 해소하고자 협회가 움직이고 노력하면 비회원사들도 자연스럽게 협회에 가입하려 할 것이고, 이는 정체되어 있는 협회에 새로운 발전의 바람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현재 대구 지역의 공공 및 민간 부문의 건설경기는 어떠한 상황이며, 대구시회 회원사들의 수주 실적은 어느 정도인지요?

대구 지역의 지난해 수주액은 1조 9,000억원 정도였는데 수년째 비슷한 수준으로 장기 침체를 겪고 있습니다. 회원사 180여 개사 가운데 40% 정도는 1년 동안 1건의 공사도 낙찰 받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민간 경기는 그나마 공장 등 비주거용 건축물 착공이 지난해 다소 많아 예년 수준을 보였지만, 공공부문은 수년째 우리 지역에 대형 공사가 없는 등 일감이 많이 줄었습니다. 무엇보다 저가 발주 등으로 적정 공사비가 책정되지 않아 시공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유관 기관이나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같이 살아갈 수 있는 방안들을 백방으로 찾아보고 있습니다.

적격심사제 개선안과 최저가낙찰제도에 대한 회장님의 견해와 문제 해결 방안을 듣고 싶습니다.

큰 방향에서 정부 정책이 틀린 것은 아닐 수도 있으나 아무리 좋은 제도나 취지라도 때와 장소를 가려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과 같이 지방 중소기업이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적격 심사 평가시 실적과 가격 평가를 강화하고, 최저가낙찰제를 예정대로 확대한다면 지방 중소 건

인터뷰

설업체는 문을 닫으라는 말밖에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두 제도의 시행 시기를 건설경기가 어느 정도 회복될 때까지 수년간 유예하기를 바라며 지역 중소 건설업체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도 동시에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페이퍼 컴퍼니 퇴출이라는 정책은 올바르지만, 등록 기준을 제대로 갖추고서 실제로 일을 하는 건실한 업체들의 수주와 경영마저 어렵게 하는 제도 시행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건설업을 회생시키기 위한 대책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공사 물량 확대 및 적정 공사비 확보가 핵심 대책입니다. 최근에 대구시와 우리 협회가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 대책 회의를 가졌는데 그때 우리 협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건의하였습니다. 먼저, 공사 물량 확보를 위해서는 ▶ 서민 일자리인 건설 사업을 통한 복지 예산 지출 방안 마련 ▶ 제한된 예산에서도 분할 발주 철저 이행으로 물량 확대 효과 도모 ▶ 공기업 및 공공단체 공사 발주시 지역 업체 참여 확대 ▶ 노후 아파트의 리모델링 수직 증축 허용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적정 공사비 확보를 위해 ▶ 설계시 적정 공사비 계상(대구시 실적공사비 적용 기준 철저 준수) ▶ 최신 표준품셈 적용 설계 ▶ 이윤, 관리비 등 제비율은 법정 요율 적용 또는 최소한 조달청 제경비율 적용 ▶ 공기 연장시 간접비 반드시 지급 ▶ 예산 부족시 확보된 예산 범위 내로 공사량 줄여서 발주 ▶ 시내 공사인 경우 교통 혼잡, 기계 투입 곤란 등 사유를 반영하여 표준품셈에서 정하고 있는 품의 할증 요율 반드시 적용 ▶ 계약심사제도를 취지에 맞게 설계비 과당 계상 및 사업 타당성 검증

수단으로 사용하고 공사비 삭감 수단으로는 사용하지 말 것 등을 제안하였습니다. 이런 점들만 철저히 수행하고 지켜지면 지역 건설업체들의 어려움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규모간, 경향간, 원하도급 간 건설업체가 상생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처들이 취해져야 한다고 보시나요?

서로 간에 같은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동반자 의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나친 경쟁과 한쪽의 일방적인 양보를 요구하는 제도 개선은 지양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업체 간에도 서로를 배려하는 풍토가 조성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를 테면 대형 업체들이 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 공사가 아니라도 자율적으로 각 지방 소재 업체들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것과 같은 상생 여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토건족, 삼질족 또는 부패·비리 온상 등과 같은 부정적인 건설산업의 이미지를 바꾸기 위해 건설업계는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요?

그동안 국가와 사회 발전에 크나큰 기여를 해온 건설업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은 우리 건설인들이라면 누구나 가질 텐데요. 우선 우리 건설업체들이 양질의 성실 시공을 하고 동시에 사회공헌 사업도 꾸준히 확대하면서 이미지 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언론 홍보 등도 확대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면허 대여, 무면허 무자격자 등의 부실업체에 대한 퇴출 조치도 꾸준히 강력하게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글·사진 : 이형우 편집장